

No. 2013-34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8. 19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을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주 전반에는 미국의 금리상승에 따른 美日간 금리 차 확대에 약세를 보였으나 후반에는 반등
- 장기금리 : 주 전반에는 주가하락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후반에는 미국과 유럽의 장기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상승세

구 분	8.12(월)	8.13(화)	8.14(수)	8.15(목)	8.16(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6.22	97.43	98.22	97.95	97.55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54.28	1,144.59	1,136.21	-	1,151.22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3,519.43	13,867.00	14,050.16	13,752.94	13,650.11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745	0.735	0.750	0.740	0.755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對한국직접투자 모두 전기보다 증가
- 2013년 6월 경상수지는 무역·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확대되어 흑자폭이 축소
- 2013년 6월 실업율은 3.9%로 4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

구 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3.8			2.6(P)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
對한국 투자	(40)	7.7			9.1			-
소비자물가(전기비상승율,%)	▲0.2(0.0)	▲0.3	0.1	0.3	0.3	0.2	0.0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
엔화 對미달러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환율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1차 속보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일본경제의 성장을 위한 TPP참가와 구조개혁』 21세기정책연구소, 8월 10일
*출처:<http://www.21ppi.org/pocket/pdf/34.pdf>
- 『경쟁력강화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일본정책투자은행, 8월13일
*출처:http://www.dbj.jp/ja/topics/dbj_news/2013/html/0000013244.html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을

□ 기대에 못 미친 GDP성장을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GDP통계(1차 속보치)에 의하면, 2013년 2분기(4~6월) 경제성장은 전기비 0.6%, 연율로는 2.6%로 민간연구기관의 예상치 3.6%보다 낮게 나타남
- 3%에 미치지 못한 성장률은 주로 설비투자과 재고투자 등 민간기업 부문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계부문의 건조세와 엔저에 의한 수출증가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 최근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012년 3분기 -3.6%를 바닥을 친 후, 4분기에는 1%로 플러스로 반전, 2013년 1분기에는 3.8%로 양호

□ 소비세 증세에 대한 판단재료로서 2분기 성장을

- 아베정부는 유식자 회의 의견과 9월 발표 예정인 2차 속보치를 예의주시한 후 소비세율 인상에 관한 최종판단을 할 방침인데, 1차 속보치가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신중론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토츠헌연구소는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 수준까지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성장률 2.6%는 3%에는 못 미치더라도 실망스러운 수치는 아니고, 일본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 아마리 경제재정·재생상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증세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재료라고 평가

□ 명목성장률이 실질성장률을 상회

- 명목성장률은 0.7%, 연율 2.9%로 3분기 만에 실질성장률을 상회
- 종합적인 물가동향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전기비 0.1%로 3분기 만에 플러스, 수출물가 상승이 전체를 끌어올림

□ 소비, 성장의 견인차

- 무엇보다도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소비는 2분기에 전기비 0.8%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면에서 0.5%포인트 끌어 올림
- 피고용자보수의 증가와 소비마인드의 개선이 개인소비 증가에 기여
- 시계, 보석 등 내구소비재와 반내구소비재 및 외식, 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1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
- 6월의 흑서로 의류와 에어컨 소비도 증가, 취업자가 늘어나 명목 피고용자보수가 전년 동기비 1% 증가한 것도 소비를 끌어 올림

□ 공공투자도 성장세 강화에 기여

- 실질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에서는 사회보장급부와 공공투자를 합친 공적수요가 0.3%포인트로 가장 컸음
- 공공투자는 1.8%증가하여 6분기 연속 플러스.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사업과 2월 결정된 긴급경제대책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증가율이 5분기 연속 확대

□ 민간 설비투자는 부진

- 민간수요는 개인소비가 늘었으나 재고증가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
- 기업의 설비투자는 0.1% 감소, 선박과 자동차분야에 대한 투자가 6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3분기 연속 저하
- 주택투자는 주택론 금리의 상승과 소비세증세를 겨냥한 가수요로 착공은 늘어났으나, 공사 진척이 늦어 전기비 0.2% 감소

□ 수출기여도, 2분기 연속 플러스

-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해외수요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
- 수출증가율은 3%로 2분기 연속 플러스
- 대유럽 수출은 부진했으나 대미 자동차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엔저로 일본방문객이 늘어난 것도 수출을 끌어올렸음
- 이토츠헌연구소는 엔저에 의한 수출수량 증대효과는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발표
- 금년 5월까지 엔저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엔저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는 적어도 2013년 내에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 2013년도 전망

- 일본경제는 수출 면에서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내수에 힘입어 3분기 이후도 높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공공사업 집행에 따라, 3분기 이후에도 공공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개인소비도 3분기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나 견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비투자도 회복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
- 개인소비는 2013년 상반기 높은 증가의 반동으로 다소 둔화될 것이나, 이를 민간설비투자와 재고투자 및 공공투자 증가가 보전할 전망

③ 경제정책동향

□ 아베총리, 법인세율 인하 검토 지시

- 아베총리가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하를 검토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
 - 이는 내년 4월부터 소비세 증세를 결정하는 경우 예상되는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재정재건과 경제성장을 양립시키는데 목표를 둔 것임
 - 법인세율 인하는 성장전략으로서 대일투자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음
- 아베총리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성장전략의 근간으로 설비투자 감세를 포함시킨 바 있는데, 주식시장 등에서는 투자 감세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역부족이라는 지적
 - 이에 기업 활동 그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실효세율 인하를 통해 대일투자도 촉진하려는 것
- 자민당세제조사회는 예년보다 조기에 투자 감세를 심의, 이르면 9월 중·하순에 결론을 도출하여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방침
 - 이와는 별도로 법인실효세율에 대해서는 내각관방, 재무성, 총무성 등 관계부처에서 소비세 증세에 관한 판단에 맞춰 검토할 예정임
- 일본의 실효세율은 2012년도에 국세 분을 인하한 결과, 국세분이 23.71%, 지방세분이 11.93%로 합계 35.64%인데 여기에 대지진 이후 도입된 부흥특별법인세까지 포함하면 38.01%
- 아베총리는 단계적으로 국제표준인 25%~30%까지 인하할 계획이나, 자민당세제조사회에는 대체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음
 - 1%의 실효세율 인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쳐 3,000억~4,000억 정도의 감수가 예상
 - 지방분의 삭감은 지방자치체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국세분의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인하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부흥증세의 효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재무성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정부, 에너지절약형 운수분야에 중점지원

- 일본정부가 트럭, 선박 등 운수분야에 대한 기업의 에너지절약투자를 중점 지원할 방침
 - 트럭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탑재한다든지 또는 공기저항이 적은 선박을 건조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연구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 3년 정도를 실증시험기간으로 정하여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 에너지절약모델로서 전국적으로 보급시킬 계획
-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및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2013년도 중에 사업을 시작하여 총 25억 엔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기업 모집에 나섬
- 일본정부는 기기의 경량화로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아, 연간 60대 정도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인데, 올 가을에 트럭운송회사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금년 중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
- 일본 국내 물류의 40%를 점하고 자동차에 이어 화물운송이 많은 선박수송 분야에서는 공기나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선형이나 도료, 설비 등의 보급을 촉진시킬 계획인데, 해운회사 등을 대상으로 설계변경이나 설비도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
-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의하면, 일본 국내 최종에너지소비량은 원유환산으로 2011년도에 산업부문이 43%, 민생부문이 34%를 차지
 - 운송부문이 23%로 적으나,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 이후 소비량이 배증
- 일본정부는 에너지절약형 운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코스트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을 실시

4 일본기업동향

□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아세안지역에 집중

-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아세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3년 1~6월 기간 중 아세안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이 약 1조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4배로 확대됨에 따라 상반기 실적으로는 과거 최대로 대중국 투자의 2배에 달함
 - 중국의 임금상승과 중일관계 악화 등을 배경으로 진출대상지역을 중국 이외로 분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 국제수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1~6월 기간 중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5조 4,285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이중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4.2배인 9,986억 엔으로 급증
 - 반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8% 감소한 4,701억 엔에 그침
-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발족에 따른 역내 관세 철폐로 아세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금융, 소매업 등 비제조업에도 확산
 - 국별로는 인도네시아의 직접투자가 44% 증가한 2,440억 엔으로 가장 많음
 - JFE스틸이 금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용 강판 생산을 개시, 3억 달러를 투자하여 공장을 신설, 2016년 3월 가동을 목표
 - 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소비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6월에는 이토추상사가 유키지루시(雪印)메그밀크 등과 공동으로 건설한 프로세스치즈 공장을 완공, 가동을 개시
 - 이어 베트남의 직접투자가 62% 증가한 2,306억 엔으로 중국에 비하여 1/3밖에 안 되는 인건비를 노린 진출이 늘고 있음
 - 닛싱(日清)제분 그룹 본사가 15억 엔을 투자, 2014년 가을에 레토르트식품의 공장을 신설할 예정
- 아세안지역의 일본기업 투자의 99%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1~6월 기간에는 6개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가 약 80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4배로 확대

- 이제까지 일본기업의 진출이 많았던 태국으로부터 주변국으로 제조거점을 이전하는 이른바 「태국플러스원」으로 불리는 움직임
- 2011년 태국 홍수의 피해영향으로 생산거점의 분산수요가 커지고 있음
 - 메콩강유역의 물류망 정비에 따라 태국으로부터 인건비가 저렴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음
 - 니콘은 라오스에 디지털카메라 공장을 신설 중으로 10월 가동 예정인데, 태국에서 생산하는 주력 보급기종의 일부공정을 이전할 계획